

# 교차로



전주 대사승들이 장원 판소리부문 조영자 씨



"정중한 선배들도 많은데 저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니 죄송하고 기쁩니다. 오늘 수상은 판소리 발전에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채적으로 알고 정진하겠습니다."

지난 2일, 제2회 전주대사승들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문에서 역대 최연소 장원을 차지한 조영자씨는 불자였다.

## "불교노래도 불렀으면"

선생의 문하생으로 본격적인 판소리를 시작, 언니이자 스승인 조소녀씨의 사사를 들은 받아왔다.

대회 최고의 영예를 안은 조씨는 "성량과 감정이 풍부하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체력이 약한게 흠이라고도 하세요"라며 자신의 단점을 내보냈다. 이어 "체력단련과 꾸준한 판소리 연습으로 신명나는 소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는 그녀는 앞으로 불교를 소대트 한 노래도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 판문점 '설명회'에 참석

월주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지난 12일 통일 민족광복회의 회원들과 함께 판문점을 방문, 평화의 집 3층 회의실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 이날 판문점 방문에는 설정 원상 총지하 일면 법타 시현 현근스님들이 동행했다.

## 문체부 장관상 수상

동광스님(청소년교화연합회 중앙이사·도선사주지)은 지난 7일 '95 대한민국 청년지도자육성회 유공 부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 연예협 가수분과 등록

지범스님(제주극락사 주지)은 최근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에 등록되어 공식 활동을 펼치게 됐다. 스님은 지난달 5집앨범 '남게로 가오니'를 내고 찬불명상곡 발표회를 갖는 등 음성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 2기 봉사단 발족식

성덕스님(불교 자원봉사연합회 회장)은 오는 21일 종로구 경운동 사무실에서 제2기 자원봉사인대화 수료 및 2기봉사단 발족식을 가졌다.

## 동국대 총동창회장에 재선

황명수씨(동국대 총동창회장)는

## "강원 설립등 교육불사에 최선"

### 대한법화종 제15대 총무원장 대호스님

"임기동안 항상 출가의 정신을 잊지않고 본래 면목을 추구하는 동시에 큰 심부름꾼으로서 성실히 정진하겠습니다. 또한 믿음, 정진, 실천을 강조하셨던 종조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본종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7일 대한불교 법화종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제15대 총무원장 취임식을 봉행한 김대호스님(부안 용수암주지)은 무엇보다도 임기동안 교육불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승가교육 강화를 위해 강원을 설립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 대호스님은 이를 위해 경남통영 안정사에 도제양성을 위한 강원을 설립, 종단의 위상을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기 5년동안 △종헌 정비의 개정 △한방병원 건립 △한총무원 청사를 창종 당시 청사인 성북동 무량사로의 이전 등을 비롯 복지사업을 활발히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호스님은 불교국가인 "미안마의의 지속적인 불교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교류를 통한 양국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근 기자>

지난 3일 열린 동국대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회장에 선출됐다.

## '고려 불교미술'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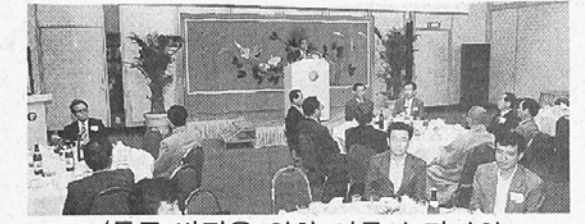
홍윤식교수(동국대 박물관장)는 14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공개실에서 대한불교진흥원 주최 다보문화강좌에 참석, '고려시대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강연한다. (02)719-2606

## 시집 <화염길> 펴내

박찬(시인·스포츠팀을 문화부차장)은 최근 민음사에서 '선사에서' '마음의 폐허' 연작등을 묶은 세번째 시집<화염길>을 펴냈다.

## 부산불교음악지도자 협회창

김성국교수(부산연연 음악과장)는 지난달 13일 '부산불교음악지도자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김교수는 우리 민족음악의 재조명을 통한 찬불가 제모습 찾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 '동국 발전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

"동국발전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가 지난 7일 저녁 7시 프라자호텔 22층 대수출에서 동대출신 언론인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조계사 청년회 18주년 기념법회

조계사청년회 18주년 기념 대법회가 지난 3일 조계사에서 열렸다. 주지 현근스님과 청년회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조계사 청년회 문

## 내일을 여는 불자

### 경블련 총무부장 임영래 씨

"불법포고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사회운동이야말로 지금 불교가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일 아닐까요?"

6·27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시민단체협의회와 '전국공동정책캠페인'과 지난 5월30일 발족한 불교시민단체 공명선거 감시활동에도 참여해 눈코 뜰새 없이 바빠 움직이고 있는 임영래

씨. "순수공이나 저분과는 뛰어난 재주가 있었음에도 정작 보물창고를 가려온 사람은 삼장법사였습니다. 단순한 재주가 아닌 끊임 없는 구도적 자세와 부동성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요."

서유기를 예로 들면서 자기수행을 강조하는 임부장은 개개인이 변해야 사회가 바뀌고 그래야만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어쨌든 명분보다 실질적 대 사회활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임부장은 불교가 아직까지 자정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불교의 '자비사상이야말로 세계를 이끄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의심치 않았다.

이날 동문언론인의 친목과 결속을 위한 동국언론인회를 구성하고 초대회장에 중앙일보 전무 정운경 씨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 사회활동 왕성한 실천 불교인

### 환경모임 외국인노동자마을 등 창립 산파

부장 (36,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총무부장). 89년 결성된 창립을 보면서 불교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임부장은 환경에서의 공적생활과 국회에서의 1년간 활동 끝에 91년 경블련 창립을 주도, 평소 원하던 불교시민운동에 발을 들여 놓았다.

"세상 모든 것이 불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런 이치를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자기당파와 권위에만 빠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교의 대사회 역할을 강조하는 임부장은 인신매

매 방지활동을 시작으로 성폭력 특별법 제정, 공적방송 촉구, 자비의 집 개소,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난해 조계종개혁 동향 등 수많은 일을 해낸 경블련의 산 증인이기도 하다.

"순수공이나 저분과는 뛰어난 재주가 있었음에도 정작 보물창고를 가려온 사람은 삼장법사였습니다. 단순한 재주가 아닌 끊임 없는 구도적 자세와 부동성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지요."

서유기를 예로 들면서 자기수행을 강조하는 임부장은 개개인이 변해야 사회가 바뀌고 그래야만 불국토를 건설할 수 있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어쨌든 명분보다 실질적 대 사회활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임부장은 불교가 아직까지 자정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불교의 '자비사상이야말로 세계를 이끄는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의심치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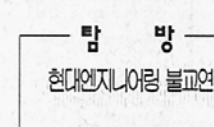
이날 동문언론인의 친목과 결속을 위한 동국언론인회를 구성하고 초대회장에 중앙일보 전무 정운경 씨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 70여 회원 교리공부에 몰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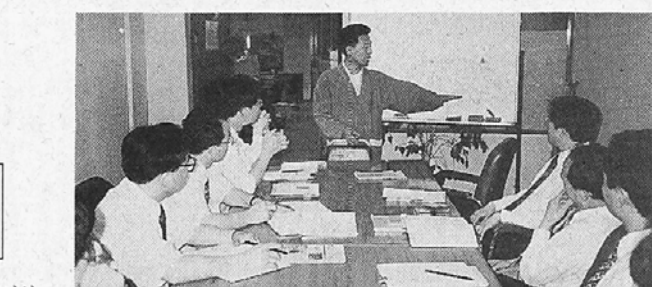
### 불법배우고 실천해 직장생활도 신바람

"화두란 무엇인가?" "참선은 명상과 같은 것인가?"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빌딩 현대엔지니어링 플랜트사업본부 12층 회의실.

현대엔지니어링 불교연구회(회장 김광덕)의 회원들이 묘각 지도법사에게 실례 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를 쉽고도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회원들의 요구에 매년 해오던 금강경 해설강의를 뒤로 미룬 채 특별강의가 시작됐다.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



의가 진행되는 동안 하이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전형적인 회사원 처리의 불교연구회회원들은 갖 입학한 신입생들처럼 귀를 세우고 강의에 몰입한다. 현대엔지니어링 불교연구회는 지난 91년 불교에 관심 있는 70여명의 회원이 함께 일구어 낸 직장신행모임으로 매월 둘째 넷



◇현대엔지니어링 불교연구회 회원들은 불교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으로 법사님의 특강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

제주 목요일 오후6시 법회를 진행하며 바쁜 업무로 흐트러진 일상을 바로잡고 경전공부, 교리공부를 통해 불교에 대한 호기심과 증진증을 풀이하고 있다. 울가울에는 유명사찰

을 방문해 더 높으신 스님들의 법문을 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 직급을 초월해 과장 부장 겸사원 모두가 똑같은 참석제자가 되는 이 시간, 법사님의 가르침을 한자라도

빠뜨릴까 열심히 메모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진지하기까지 하다. 이는 대로 행하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법사님의 강의가 끝나가 무섭게 다시 질문이 시작됐다.

"반야심경은 모든 사찰에서 다 봉독하나요?" "깨달음이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질문들속에 불교연구회의 튼실한 실행활동이 다음 법회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회의실 한쪽벽에 나붙은 홍보포스터 '고객이 웃을 때 우리의 보람도 커집니다' 문구에서도 불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그 속에서 바쁜 직장생활을 뛰어넘고자 하는 현대엔지니어링 불교연구회 회원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은지 기자>

## '95 신·편입생 모집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불교포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심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2급 119명 자격취득  
92. 8 본교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불교포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3. 특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 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95년 6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511-1080, 511-2026-8 조계사 앞 삼보원: 732-990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511-2026-8, 511-1080) 주소:우편번호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 불교교양대학 수강생 모집

한국불교의 저변 확대와 불교 대중화·생활화를 이 땅에 퍼고자 30년을 정진하신 한정섭 대법사를 교수로 모시고 불교기초교리·전문교리를 종합 정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뜻 있는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기초반 2기 ■■■ ■■■ ■■■ 중등반 1기

1. 개강: 1995년 7월 4일 오후 2시  
2. 장소: 청량선원 큰법당(기초반 2기), 청량선원 작은법당(중등반 1기)  
3. 강좌내용: 기초반 2기 → 불교기초교리해설(한정섭 법사) 비교종교학(BBS 자비의 전화 진행자 이경우 교수) 아함경 해설(BBS 자비의 전화 진행자 정명 스님) 중등반 1기 → 천수경해설(한정섭 법사의 특강)  
4. 기간: 3개월 과정(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2시간)  
5. 수강회비: 매월 3만원

•경전연구반 • 1.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2. 장소: 청량선원 큰법당  
3. 강좌내용: 화엄경(한정섭 법사) 4. 수강회비: 매월 5만원  
5. 문의: 사단법인 한국불교교양학원 사무국(02-964-8044, 8085)

사단법인 한국불교교양학원 부설  
한국불교 교양대학장 석성륜